

제23-46호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

Weekly News Update on CHP/DHC

2023.11.29. (수) 2023. 11. 27.(월) 17:00 기준



1. 국내 주요 단신

■ [집단에너지 기획연재①] 집단에너지, 열부문 탄소중립의 열쇠 (이투뉴스, 2023.11.27.)¹⁾

▶ 정부 내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열에너지 정보·통계 DB화 시급

- 열에너지는 주거부문,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%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따라 국내 열에너지 부문에 대한 종합적, 구체적 추진전략이 전무한 상황이며 국가열지도 구축 등 일부 계획 역시 데이터 활용 측면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.
-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열요금 제도, 열병합발전의 유상할당 예정 등 집단에너지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.
- 업계 전문가들은 열에너지 관련 정보·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.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촉구된 만큼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열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.

■ 산업부, 열E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(칸, 2023.11.27.)²⁾

▶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합의

- 지난 24일, 산업부는 '미활용열 활용촉진 범부처 TF회의'를 개최하여 향후 미활용열 데이터 통합관리를 추진해나가기로 함.
- 미활용열과 폐열은 경제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률이 낮으며 사업자를 위한 정보도 기관별로 산재된 상황임. 이번 회의에서는 미활용열 활용 촉진 방안이 중점으로 논의됨.
-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폐열 발생정보를 집단에너지공급자 등 미활용열 잠재적 수요정보와 연계하며 비즈니스 모델발굴 단계부터 확산까지 협업하기로 합의함.

1) [이투뉴스](#)

2) [칸](#)

■ 분산에너지 특별법,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공개(이투뉴스, 2023.11.27.)³⁾

▶ 특화지역 지정요건,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등 구체화

- 지난 27일,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공청회’를 개최하여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.
-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▶분산에너지 시장현황 ▶인력 및 공급 현황 ▶정책 및 국제동향 ▶분산에너지 거래 형태 등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지정함.
- 또한, 전기사업법(분산형전원)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,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, 구역전기, 자가용, 중소형 원자력발전 사업자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와 집단에너지용 열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함.
-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▶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 ▶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▶재원 확보 방안 ▶주민·기업 등 의견청취 결과 ▶인력양성 방안을 특화지역계획에 담도록 명시함.
-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,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내년(2024년) 5월까지 마치고, 6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됨.

■ 집단에너지업계, SMP 상한제 연료비 손실 보상 '3라운드'(전자신문, 2023.11.26.)⁴⁾

▶ SMP상한제 기간 내 전력생산으로 인한 손실에 집중

- 지난 23일, 열병합업계의 SMP상한제 손실 보상 요구안이 포함된 안전이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과하여 내달 8일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안전으로 상정될 전망이다.
- 열병합발전사의 SMP상한제 손실 보상 요구안은 손실과 보상방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지난 5월, 8월 두 차례 무산됨.
- 한남 등 열병합업계는 SMP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제연료비가 보전되도록 정산식을 보완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 최종안으로 제출함.
- 열병합업계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회계법인 연구용역을 통해 SMP상한제 기간 내 전력발전 연료비가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정산 받은 금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함.
- 열병합업계는 열병합발전기의 기존 정산원칙(무부하비용 50%)과 상관없이 전체 연료비를 열과 전기로 배분, SMP상한제 시행 후 전기 정산 금액과 열 판매 금액을 비교하여 전기 측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임.

3) 이투뉴스

4) 전자신문

1. 국내 주요 단신

■ 한남, 산업부 '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' 획득(에너지코리아뉴스, 2023.11.24.)⁵⁾

▶ 저탄소 열병합발전을 위한 생물학적 탄소 저감 및 활용 기술

- 지난 17일, 한남은 미세조류를 활용한 CO₂ 생물학적 전환기술로 산업부에서 선정하는 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를 획득함.
- 해당 기술은 열병합발전소 배기가스에 포함된 CO₂ 를 미세조류의 광합성작용으로 저감하고 이 과정에서 증식된 미세조류를 바이오디젤, 건강식품,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시킴.
- 한남은 지사 내에 10톤 규모의 미세조류 배양 실증플랜트를 운영 중이며, 고부가가치 유용물질 생산 이외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, 저에너지 소요 미세조류 건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

5) [에너지코리아뉴스](#)

